

제12권 16호

2022. 8. 8~2022. 8. 21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최근 '빚 탕감' 논란과 시사점 |
| 이슈분석 | 증권사, 위험관리 강화 및 수익원 다양화 필요 |
| 금융경영브리프 | UBS, 중국 내 독자 공모펀드 운용사 출범
우주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우주 경쟁 본격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한미 기준금리 역전發 자금유출 우려는 과도
외 환 : 시장심리 개선과 경기 리스크의 어색한 조합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uyoung.shin)

논단

교수 유경원

이슈분석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수석연구원 양정우(yjw406)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위원 정유탕(jungyt)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2 **논단** 최근 '빛 탕감' 논란과 시사점
- 06 **이슈분석** 증권사, 위험관리 강화 및 수익원 다양화 필요
- 10 **금융경영브리프** UBS, 중국 내 독자 공모펀드 운용사 출범
우주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우주 경쟁 본격화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한미 기준금리 역전發 자금유출 우려는 과도
외 환 : 시장심리 개선과 경기 리스크의 어색한 조합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최근 ‘빚 탕감’ 논란과 시사점*

유 경 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kwyoo@smu.ac.kr)

새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이 실행하기도 전에 ‘빚 탕감’ 논란에 휩싸였다. 채무조정 지원이 핵심인 이번 대책은 원리금 감면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책이 부각되면서 방안의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도덕적 해이와 불공정 논란만 야기 되었다. 우리나라 민간부채 규모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채무조정제도의 정비는 중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적 제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을 위한 비상시적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발표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었던 원리금 상환 유예를 상환부담 경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대책의 취지이다. 하지만 원리금 감면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책이 부각되고 코인투자 실패에 대한 빚 탕감 이슈로 번지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세대 간, 직종 간, 젠더 간 갈등만 양산되었다.

9월말 만료되는 유예조치에 따른 부실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와 같은 채무조정 방안의 도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9월 말 만료되는 유예조치로 인한 대규모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로서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의 목적이 맞다고 해도 이와 같은 대책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도입과정에서 결국 정책목표와 수단, 그리고 실행방법과 시기 설정에 있어 참여자들 간 충분한 논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번 논란에서 발생한 대책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향후 채무조정제도의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 빚탕감 논란과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상환조건의 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회복 및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소비지출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는 보험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품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한시적인 채무조정방안 도입 시 관건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채무조정 방안의 도입은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 가상자산 투자실패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슈가 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채무조정방안의 긍정적 기능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금과옥조처럼 이야기되는 두 가지가 계약신성의 원칙, 도덕적 해이 최소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너무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채권자 친화적으로 채무조정제도가 운영되고 경제 위기시 채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계약준수의 원칙이 강조되는 등 채권자 친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경쟁, 이에 따른 압류·경매의 증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연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오래 그리고 깊게 나타났다. 통상 채무조정제도는 경제의 배수로 역할로 비유되는데 배수호가 너무 적다면 적은 비에도 금세 물난리가 나는 것처럼 배수호가 적더라도 상시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임시 물길도 갖추놔야 물난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방식의 배드뱅크 도입의 문제점

한편 이번 채무조정방안은 그동안 ‘부실채권 해결사’로 활용되어 온 배드뱅크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통상적으로 배드뱅크는 비상시적 제도로 최종 목표는 금융시스템 보호다. 은행의 재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부실채권을 별도 정리하는데 비해 이번처럼 선제적으로 배드뱅크가 도입된 것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재무여건이 좋은 상태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굳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배드뱅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동안 축적해온 은행들의 높은 수익과 충당금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조정이 먼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인센티브 변화에

한시적 채무조정방안 도입의 관건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

채무조정제도는 경제의 배수로 역할로 비유

배드뱅크의 최종 목표는 금융시스템 보호

민감하게 이들의 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이다. 통상 채무조정은 가능한 부채상환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는데 반해 이번에는 일반적인 단계를 건너 청년층에는 이자 감면, 자영업자에게는 원금 감면이라는 정책부터 내놓았다.

구원투수가
갑자기 선발투수로
등판한 셈

그동안 이와 같은 정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가 대부분 실현된 상황에서 도입된 정책이었고 거시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가시화되었기에 부득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벗어나 빠른 채무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피해를 축소하는데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로 도입된 새출발기금과 같은 비상시적 채무조정 방안은 사실 금융 시스템 위기를 구할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갑자기 선발투수로 등판한 셈이 되었다.

사실 이렇게 원금감면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채무조정방안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당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조치로 기획되다 보니 원금탕감과 같은 지원책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정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제도변화에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어 행태변화가 발생하는 등 민감하게 작동한다. 결국 이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강화시켜
공적 부담을 늘릴
우려

아울러 은행의 건전성이 아직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하기로 한 부실채권을 어떤 가격에 매각할지 그리고 다중채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채권자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따를지도 의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채권자들은 가능한 부실채권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 할 것이고 설사 가격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채무자들도 전략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환을 하지 않고 부실우려인 상태로 만들고 일정부분 감면을 받고자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그 규모가 확대될 때 결국 이와 같은 손실은 공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 향후 채무조정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실천 개요

이번에 도입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종합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와 일관된 실천이 요구된다.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향후 민간부채의 채무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번 대책처럼 채무조정 정책의 방향 내지 목적을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이 아니라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 및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공적·사적 상시적 채무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해 대규모 채무조정 발생을 대비하고 이에 대한 비상시적 방안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물론 다른 직종의 가계들의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부채 이슈 역시 향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도입된 안의 초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계층에 맞추어져 있으나 금리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계 가계와 중소기업 문제가 종합적인 틀에서 함께 검토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은행 등이 주도하는 자율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적·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상시적 제도의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접근성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거나 경제위기가 본격 발생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 제도를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부채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시적 대응체계 역시 준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시적 방안 도입시 채무조정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대책처럼 특정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위기 순간에 짧고 굵게 우리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투수의 역할이 적절하다고 본다. 

가계 및 기업 부채 부실에 대비한 종합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가 필요

상시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채무조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증권사, 위험관리 강화 및 수익원 다양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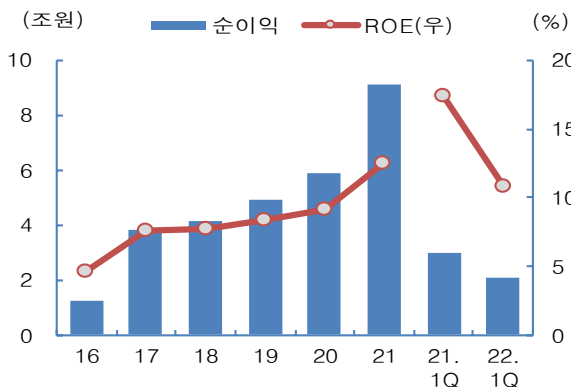
안 성 학 연구위원(shahn0330@hanafn.com)

지난해 증권업은 주가상승과 IB실적 호조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경기침체와 금리상승 등 환경 변화로 수익성 악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투자심리 악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와 IB 부문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금융 등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는 시장변동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와 수익구조 다양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다.

■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불리한 환경변화로 증권사 수익 증가세가 감소 국면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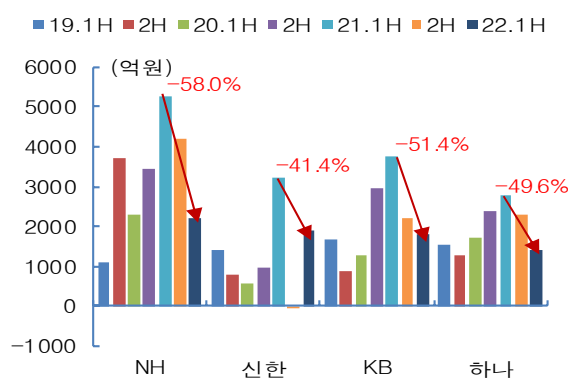
- 지난해까지 주가상승과 IB 실적 호조 등으로 증권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 '21년 순이익과 ROE가 각각 약 9.1조원,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2.1분기에도 순이익 약 2.0조원, ROE 10.8%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달성
- 그러나 2분기 들어 증권사 실적 개선을 주도하였던 거래대금이 주가하락으로 급감하고 또 다른 주요 수익원인 IB 실적마저 위축되면서 수익성이 둔화
 - 최근 실적이 발표된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평균 50% 감소
- 향후 금리상승,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시장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IB, S&T 등 증권업 주요 사업부문에서 실적 감소가 예상
 - 특히 수익구조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S&T 부문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여 증권업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전망

■ 증권사 전체 순이익과 ROE 추이



주 : 각 1분기 ROE는 연환산 수치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순이익 추이



자료 : 각 사 IR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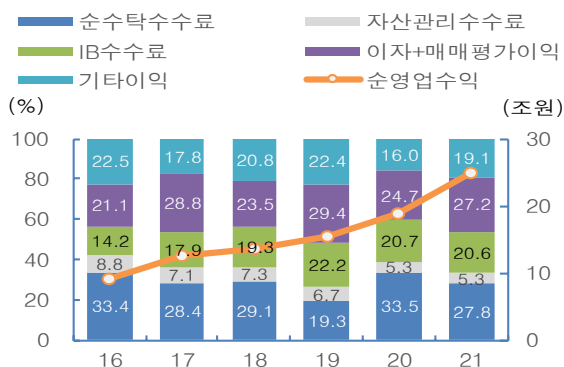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폭증했던 거래대금이 주가하락과 더불어 위축되면서 브로커리지가 증권사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
 - MZ세대 등 신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등으로 시장참여자 중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한 때 80%를 넘는 등 주식거래가 매우 활발
 - '19년 일평균거래대금이 9.3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체로 10조원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년 23.0조원, '21년 27.2조원으로 폭증
- 그러나 2021년 1월 일평균거래대금이 42조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근까지 주식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 '22년 들어서는 일평균거래대금이 17조원대로 감소하였는데 7월에는 13.3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년 2월 이후 최소 일평균거래대금을 기록

■ 불리한 시장 환경에 따른 주가상승 제약으로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의한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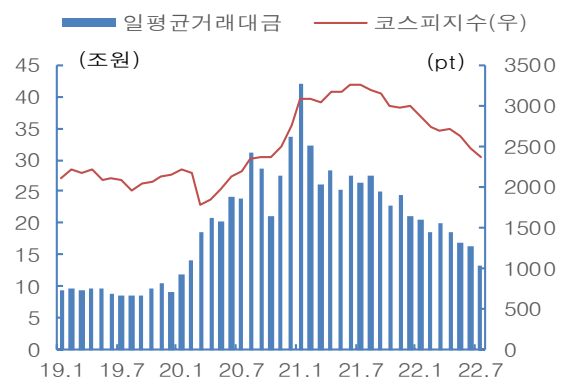
- 불확실성 지속으로 당분간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폭발적인 주식거래대금 수준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 코로나19 이후의 주가상승 및 거래대금폭증은 오버슈팅에 의한 결과로 해석
- 다만 주식 인구 수의 급증, 투자자예탁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주식거래대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조원대 미만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
 - 주식활동계좌 수와 투자자예탁금이 각각 코로나19 직전인 '20년 1월말 29.5천만 계좌, 28.7조원에서 '22년 7월말 62.8천만 계좌, 54.2조원으로 두 배 내외로 증가

■ 증권사 순영업수익 구성 변화



주 : 코스피 지수는 월간 평균값
자료 : 한국거래소

■ 일평균거래대금과 코스피 지수 추이



주 : 코스피 지수는 월간 평균값
자료 :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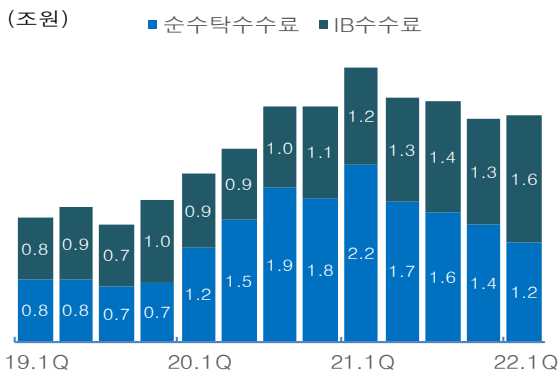
■ IB 부문 확대를 통해 증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왔으나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관련 시장 위축으로 IB 부문 수익도 점차 감소할 전망

- IB 부문은 국내외 부동산 및 SOC 등 대체투자부문에서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면서 브로커리지와 더불어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성장
 - 특히 '21년 1분기를 정점으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감소한 반면 IB 부문은 지속적인 수익력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면서 증권사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
- 증권사의 전략이 위탁매매 위주에서 IB, 자기매매 등 직접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각
 -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사뿐만 아니라 1조원 전후의 중소형사도 자본 확충을 통해 IB 사업 비중을 확대
- 그러나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IPO 연기에 따른 주관수수료 감소, 부동산 PF 수익성 하락 등으로 올해 2분기부터 IB 수익 감소가 예상
 - 특히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세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PF시장이 불황에 직면하면서 IB 수익이 크게 감소할 전망

■ 또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부동산금융 등 특정 IB사업으로의 쏠림현상 등 위험성이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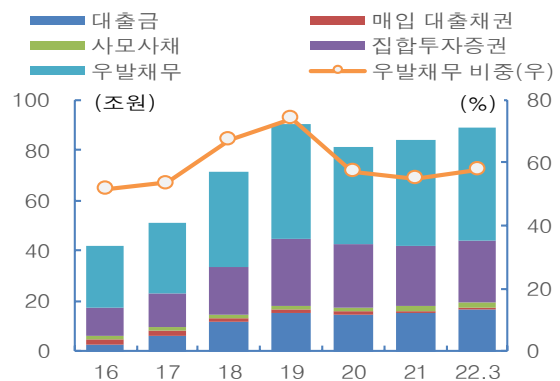
- IB 사업 대상이 수익성이 낮아진 해외대체투자 시장에서 국내 부동산금융으로 집중되어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위험관리 필요성이 증가
- 특히 부동산 채무보증을 통한 IB 사업이 증가하면서 우발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3월말 기준 44.8조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57.9%를 차지
 - 대형사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최근 우발채무를 줄여 왔으나 중소형사들이 부동산 채무보증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50% 증반을 유지

■ 순수탁수수료와 IB 수수료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IB 자산과 우발채무 규모




주 : IB 자산을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집합투자증권의 합으로 추정하며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을 표시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특정 수익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한 위험관리 필요

- 과거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IB 및 S&T 부문으로 수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
- 그러나 증권사들이 IB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해외대체투자, 부동산PF 금융 등 특정 수익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를 완화할 필요
 - 특히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는 '16년 823억원에서 '21년 2조 2,124억원으로 폭증
- 한편 시장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및 IB 사업 확대 과정에서 증가한 주식 및 채권 등 위험자산 운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 필요

■ 단기간에 증가한 증권사의 자산을 잘 배분하여 세부적인 수익원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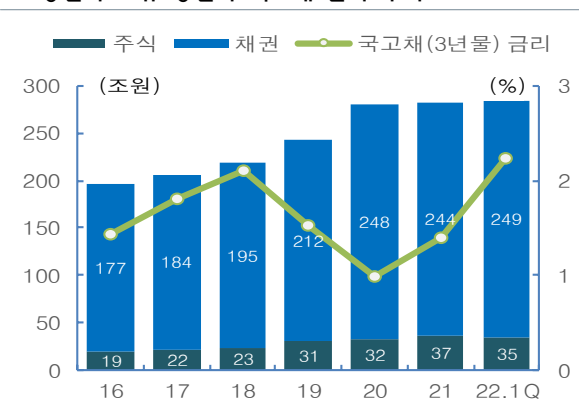
- 전체 수익구조에서 비중이 가장 적은 자산관리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를 위한 고객기반 확대가 필요
 - 증권사의 자산관리부문 확대 전략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은행 대비 부족한 고객 기반으로 인해 성장이 느린 편
 - 최근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를 고려하여 주식 이외의 수익성 높은 자산관리상품 발굴 제공함으로써 고객기반 확대를 통해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
- 각 주요 사업부문 내에서도 금융소비자 및 기업수요 변화,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필요
 -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뿐만 아니라 관련 펀드, 랩 상품 개발 지속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 플랫폼 출시 및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
 - 유망 벤처기업 발굴 통해 IB 부문에서 부동산 금융 이외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인 운용방안을 모색 

■ 부동산 익스포저 중 우발채무 비중(22년 3월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부동산 익스포저 중 우발채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	비중	
자기자본 4조원 이상	34.4조원	19.5조원	57%	70%
자기자본 1조원 이상	10.3조원	8.4조원	82%	62%
자기자본 1조원 미만	3.2조원	2.5조원	79%	71%
합계	47.9조원	30.4조원	64%	68%

자료 : 나이스신용평가(2022.6)

■ 증권사 보유 증권과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UBS, 중국 내 독자 공모펀드 운용사 출범

강 미 정 연구위원(ashleykang@hanafn.com)

UBS는 중국 펀드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해 2년 내 독자적인 공모펀드 운용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중국 금융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 규제 완화 및 공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 및 고령화, 고소득층 인구 증가 등으로 중국 내 자산운용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모펀드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쟁 심화 가능성 및 현지 펀드판매사에 제공하는 높은 수수료, 정책 리스크 등을 유의해야 한다.

■ UBS는 중국에서 2년 내 독자적인 공모펀드 운용사를 출범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1]

- 중국 펀드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해 2년 안에 전액 출자 공모펀드(mutual fund) 운용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현재 관련 사업의 핵심 인력을 채용 중
- 중국 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공모펀드 운용사의 전체 지분 확보에 실패하고, China Life와의 합작 자산관리 사업 협상도 중단되면서 전략을 수정
 - UBS는 중국 SDIC Taikang 신탁회사와 합작(각각 49%, 51% 지분)으로 UBS SDIC 펀드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단독법인 형태의 사모펀드 운용사도 보유
 - 지난 2020년부터 China Life와 개인 투자자 대상 자산관리 상품 판매 사업을 논의 중이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

■ 공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중국 정부의 금융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가속화

- 올해 5월 말 기준 중국 공모펀드 AUM은 25조 위안으로 2015년 대비 약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미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4위 시장으로 부상
 - 펀드 유형별로는 MMF(47.9%), 혼합형(21.8%), 채권형(19.5%), 주식형(9.8%) 順
 - 사모펀드의 경우 관리자산이 약 20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
- 중국 금융시장 개방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업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 비율과 업무 범위 제한이 완화 및 철폐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확대
 - 2020년에는 증권사, 공모펀드, 생보사 등 여타 금융업에 대한 전액 출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외국 자산운용사도 지분 100%를 소유한 공모펀드 운용사 설립이 가능

[1] "UBS plans to expand China footprint with new mutual fund unit", Reuters, 2022.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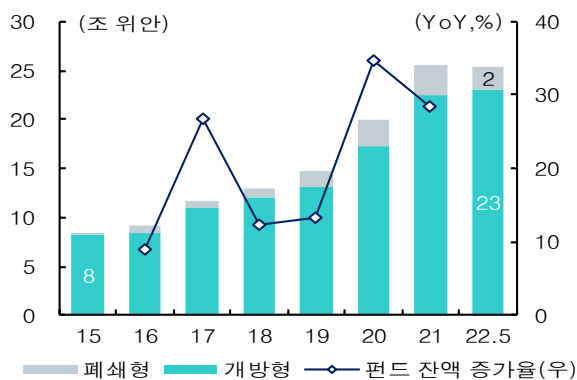
■ BlackRock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공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여 지난해 첫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Schroder 등도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신청

- 외국기업으로는 BlackRock이 처음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2021년 8월 공모펀드를 판매하였으며, 이어 Fidelity와 Neuberger Berman도 독자 공모펀드 운용사를 설립
 - 해당 펀드는 중국 신에너지와 소비, 디지털 경제, 교육, 양로 등에 집중 투자
 - BlackRock은 지난 5월 외국 헤지펀드가 중국 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 자격도 신청
- 중국 자산운용 시장 공략을 위해 Morgan Stanley는 현지 합작사 상해 화신증권으로부터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며, JPMorgan도 외국계 독자 회사로의 전환을 시도

■ 중국 내 자산운용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경쟁 심화 및 정부의 정책 리스크 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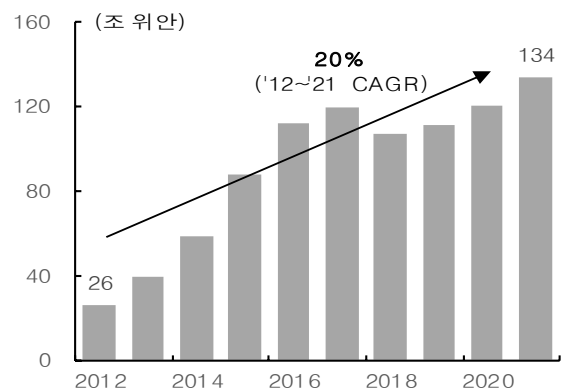
- 소득 수준 향상 및 고령화, 고소득층 인구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자산운용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모펀드 성장 잠재력도 높은 편
 - 자산관리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유층 인구(투자가능 자산 600만 위안 이상)도 2023년 24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21년 기준 전체 자산관리 규모 중 공모펀드가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만 경쟁 심화 가능성과 현지 펀드판매사에 제공하는 높은 수수료 등이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불확실한 규제도 부정적
 - 외국계 금융사들은 현지 판매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운용보수의 평균 28%를 지불하였으며, 이는 전년의 26%보다 증가한 수치²⁾
 - 최근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제로 코로나 정책 등 강압적인 규제 문제가 부각³⁾

■ 중국 공모펀드 잔액 추이



자료 : 중국증권투자자펀드협회

■ 중국 자산관리시장 규모 추이



자료 : 광대은행, BCG

[2] "BlackRock, JPMorgan Face Squeeze on Profits at China Funds", Bloomberg, 2022.07.12

우주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우주 경쟁 본격화

양 정 우 수석연구원(yjw406@hanafn.com)

2010년까지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는 ‘뉴 스페이스’를 맞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우주 쓰레기 청소사업부터 우주 국제정거장 건설 사업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된 영향이 주요했다. 최근 들어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점차 우주산업 진출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사도 마지막 남은 미개척 영역인 우주산업에 직·간접 투자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 산업에서 민간 중심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맞아 급성장 중

- 씨티그룹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우주경제의 가치는 2010년 이래로 약 70% 증가한 424조원에 달하며 2040년까지 1,1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1]
 - 모건스탠리도 우주산업이 마지막 남은 미개척 영역으로 연평균 3.1% 성장하며, 2040년 연간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2]
-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저변에는 과거 국가가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크게 영향을 끼침

■ 뉴 스페이스의 서막, 민간 기업인 SpaceX와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구축 프로젝트

- 뉴 스페이스의 시작은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SpaceX가 주도한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이는 저고도 위성을 지구 전체에 감싸 우주 인터넷 구축이 목표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와 산업전문가 대부분이 현재는 SpaceX(100조원)보다 테슬라(858조원)의 가치가 높지만, 미래에는 SpaceX가 더 클 것으로 전망^[3]
- 아마존은 2026년과 2029년 두 차례에 걸쳐 3,236개의 소형 위성을 각각 다른 고도(590km, 610km, 630km)에 배치시킨다는 카이퍼(Kuiper) 프로젝트를 발표
 - 아마존은 2021년 7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로부터 발사 승인을 받았고, SpaceX는 FCC로부터 총 1만 2천개의 발사 승인을 받아 2천개의 위성을 배치 완료

[1] "The space industry is on its way to reach \$1 trillion in revenue by 2040, Citi says", CNBC, 2022.5

[2] "Space: Investing in the Final Frontier", Morgan Stanley, 2020.7

[3] "SpaceX expected to become more valuable than Tesla, Morgan Stanley survey finds", CNBC, 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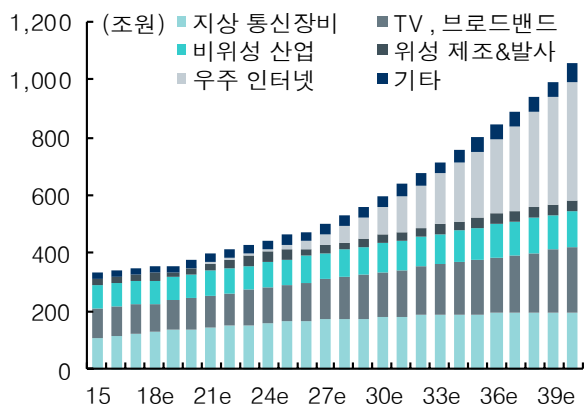
■ 인공위성 외에도 우주 쓰레기 청소부터 우주정거장 건설까지 다양해지는 우주산업⁴⁾

- (우주 쓰레기 청소) 일본 스타트업 Astroscale은 마그네틱을 활용해 우주 부유물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며, 러시아 스타트업인 스타트로켓은 우주 쓰레기를 끈적한 거품으로 위성에 붙여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려 태우는 방식
- (우주정거장 건설) 낙후된 우주정거장을 대체할 새로운 우주정거장 건설에 두 개의 컨소시엄(록히드마틴&나노랙스, 블루오리진&보잉 등)이 제안서를 제출
 - 록히드마틴 측은 연구·실험 목적인 ‘스타랩’의 모듈별로 나눠서 건설할 계획이고, 블루오리진 측은 연구·산업·관광 다목적용인 ‘오비털 리프’ 건설 계획을 발표
-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 관련 사업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에 7조원에서 2026년에는 21조원까지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⁵⁾
 - 인도 ICIC은행은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농부가 보유한 토지, 개관 및 농작물 상태 등을 평가해 이를 통해 대출을 제공해주는 상품을 선보임

■ 국내 금융사도 Space Data시장 진입 및 PF 참여 및 투자를 모색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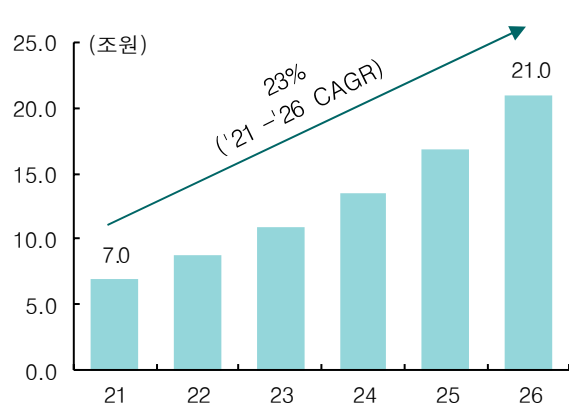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439억원 지원 계획을 밝혔고, 네이버, KT, 한컴은 Space Data 사업 진출 선언
 - 한글과컴퓨터는 세종 1호 발사에 성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와 항공 그리고 지상까지 모두를 커버하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 구축에 성공
- 금융업에 활용 가능한 인공위성 이미지 데이터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동시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PF 및 우주산업 관련 기업 투자를 모색해 볼만함
 - 국내 금융사 중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곳은 산업은행이 유일⁶⁾

■ 전세계 우주산업의 경제 규모 전망



자료 : Morgan Stanley

■ 전세계 인공위성 데이터 서비스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Markets and Markets

⁴⁾ 언론기사 종합, 2022.8

⁵⁾ "Satellite Data Services Market", Markets and Markets, 2022.2

금리: 한미 기준금리 역전發 자금유출 우려는 과도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美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조기완료 기대로 급락했으나, 연준 위원들의 강경한 물가 대응 의지로 급반등했다. 국내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기대인플레이 급등과 대내외 긴축기조 등으로 등락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을 우려하나, 외국인자금 유출입은 내외 금리차 외에도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고, 견조한 펀더멘털 고려 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금리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긴축기대와 원자재가격 등을 주시하며 상승이 제한될 전망이다.

■ 美 금리는 연준 긴축 속도조절 기대로 하락하다 연준 위원들의 물가대응 의지로 반등

- 7월 FOMC에서 연준은 2회 연속 자이언트스텝(1.75%→2.50%)을 단행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물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인상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
- 뒤이어 2/4분기 美 경제성장률(-0.8% QoQ 연율)이 2분기 연속 (-)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에 주목하며 금리가 큰 폭 하락
- 그러나 연준 인사들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연말 3.75%~4%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하자 美 금리는 급반등
 - 美 2/10년물 금리(%): 7.25일 3.02/2.80 → 28일 2.86/2.68 → 8.4일 3.05/2.75
- 영국 BoE는 금년 4Q부터 내년말까지 경기침체를 예상하면서도 연말 물가상승률을 13%로 전망하며 금리를 큰 폭 인상(1.25%→1.75%)하고 추가 인상까지 시사
 - 한편 호주 RBA는 연속 3회 빅스텝을 단행(0.35%→0.85%→1.35%→1.85%)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에 연동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 대내외 긴축 기조 등으로 등락

- 기대인플레이션(6월 3.9% → 7월 4.7%)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한은 총재는 물가가 예상 경로를 벗어날 경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
 - 다만 7월 CPI 상승률(6.3% YoY)은 예상 범위 수준이며, 10월 이후 안정화 전망
- 시장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대외금리 하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등으로 큰 폭 하락했으나, 연준의 긴축 의지 재확인 등으로 반등
 - 국고 3/10년(%): 7.22일 3.22/3.30 → 29일 3.01/3.13 → 8.5일 오전 3.1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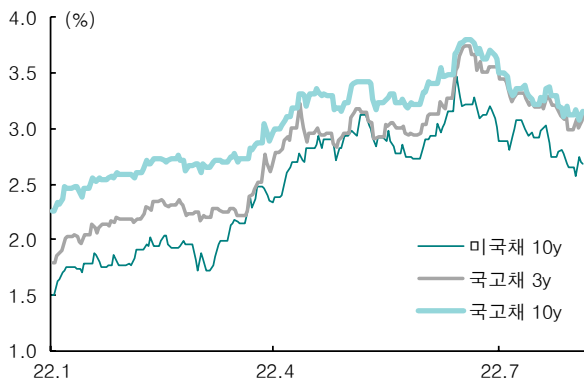
■ 한미 기준금리 역전發 외인 자금유출 우려는 과도하나,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유의

- 가파른 美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美 2.5%, 韓 2.25%)된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제기
 -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채권시장 내 자금유입도 큰 폭 둔화되며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 확대
-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내외 금리차 외에도 국가 펀더멘털, 장기투자자 비중 및 글로벌 금융환경 불확실성, 지정학적 이벤트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
 - [펀더멘털] 외환보유고, 단기외채비중, 경상수지 등
 - [채권] 원화채 신인도, 상대적 금리 수준, 장기투자자(해외 중앙은행 등) 비중 등
 - [주식]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지정학적 이벤트 등 대외 리스크, 차익실현 수요, 주도산업 전망, 투자자 위험선호도 등
- 견실한 펀더멘털 등 고려 시 과도한 자금유출 우려는 경계 필요, 다만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시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
 - 코로나19 이후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20~'21년간 외국인이 상당 부분을 흡수.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내외 시장금리차 축소 등으로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 상당

■ 국내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경계감과 대내 수급여건 등에 연동되며 변동성 장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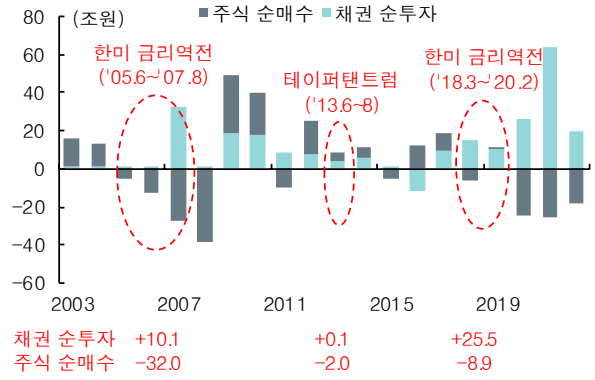
- 美 금리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가 주춤하고 7월 CPI 상승률이 전월 수준을 하회할(예상치 8.8% YoY, 전월 9.1%) 경우 상승압력이 제한될 전망
 - 인플레이션과의 주요 상호작용 지표인 임금상승률의 상승폭 축소 여부도 주목
- 국내금리는 美 물가·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시장의 긴축기대와 원자재 가격 안정세(WTI, \$88/배럴로 하락)에 따른 기대물가 흐름 등을 주시하며 상승 제한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90%~3.20%, 3.00%~3.35% 범위로 전망 

■ 국내외 국채금리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한미 금리역전 및 美 긴축중격 시 외국인자금 유출입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외환: 시장심리 개선과 경기 리스크의 어색한 조합

정 유 탁 연구위원(jungyt@hanafn.com)

연준의 공세적/일방적 긴축 우려 완화 및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시장심리 개선 속에 글로벌 달러화가 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초반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하향안정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G2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경기침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장심리 호전이 얼마나 환율 하락을 견인할지는 의문이다. 일단 1,200원대 안착을 시험해 나가겠지만, 연준 행보나 경기리스크 향배에 따른 변동성 위험이 상존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초반의 교착상태를 하향 이탈하려는 시도 반복

- 美 인플레 충격 속 7월 중순 1,320원대를 넘기도 했으나, 연준의 공세적 긴축 우려 완화,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재개 합의 등으로 1,295.5원(7/28)까지 급반락
 - 특히 7/27일 FOMC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에 그쳤고,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
- 이내 펠로시 美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쇼크와 4개월 연속 무역적자 등 여파로 1,300원대 복귀했지만, 유가 하락 등 위험선호 심리 회복 속 하향이탈 시도 재개
 - 한편, 2/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0.7%(QoQ)로 나왔지만, 미국 -0.9%(SAAR), 중국 +0.4%(YoY)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 [국제 환율] 경기 부담에 따른 美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속 달러 반락 지속

- 미국이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지만, 대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관측 확산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 달러화 약세
 - 또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도 52.8에 그쳐 2년여래 최저치 경신
- 유로화는 역내 성장률 호조와 인플레 지속 여파로 ECB의 적극적 금리인상 전망에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 부담이 이어지며 반등폭 제한
 - 유로존 2/4분기 경제성장률 +0.7%(QoQ), 7월 CPI +8.9%(YoY, 역대 최고)
- 1998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던 엔/달러 환율은 이후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130엔선 까지 급락했으나, 단기 급락 부담에다 美 금리 반등 등 여파로 낙폭 축소
- 위안/달러 환율은 美中 갈등 심화와 부동산시장 불안 속 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5.5% 내외)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확산되며 불안정한 움직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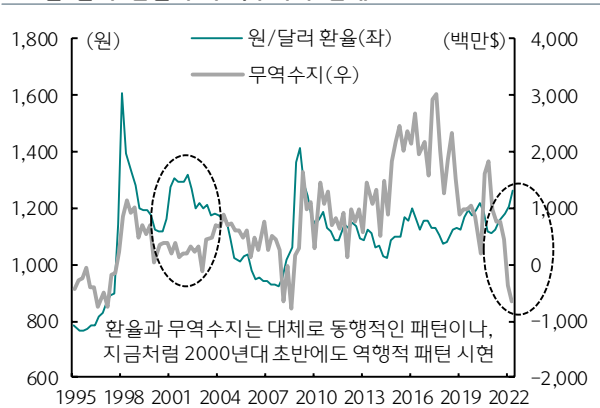
■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임박한 외환위기의 전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

- 7월 무역수지가 46.7억달러 적자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데다 1~7월 누적 적자 150.3억 달러는 사상 최대 규모
 - 특히 對中 무역적자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지속
- 본래 무역수지는 국내 달러 수급의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이처럼 무역적자 확대로 인한 환율 추가 급등, 나아가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 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내 달러 수급의 경로가 다변화된 데다, 오히려 환율 급등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축소되는 역의 경로도 존재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석은 금물
 - 최근 달러 수급은 무역수지보다는 외국인 투자나 내국인의 해외투자, 은행권의 해외 대차 등에 크게 의존(따라서 2016~20년 대규모 무역흑자기에도 환율은 상승)
 - 한편, 지금처럼 무역수지 악화와 환율 상승이 결부되던 시기(2000년대 초반)도 있지만, 그동안 대체로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동행적 패턴)가 지배적. 단, 무역의 비가격 경쟁력이 부상하면서 그 효과는 점차 약화

■ 원/달러 환율, 시장심리 개선과 경기 리스크 간 어색한 조합의 향배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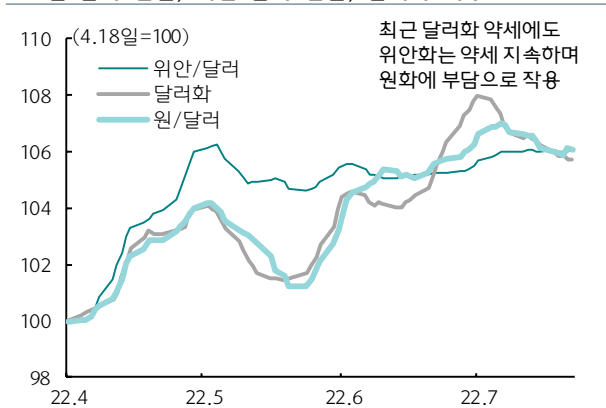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국면에 들어서고 인플레이 고점통과 기대 속 연준의 공세적 금리인상 우려도 완화되면서 달러화가 반락하는 등 시장심리 개선
- 다만, 주요국의 금리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G2 갈등에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및 성장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원화에 부담
 - 이에 원/달러 환율도 최근 달러화 반락(시장심리)만 반영하기보다는 중국 리스크發 위안화 약세 등(실물경기)에 시달리며 1,300원대 초반 중심으로 등락 지속
- 일단 펠로시發 충격이 진정되면서 1,200원대 안착 시도가 예상되나, 연준 행보나 대내외 경기침체 리스크 등의 구체화 향방에 따른 변동성 위험은 지속 

■ 원/달러 환율과 무역수지의 관계



자료 : 韓銀 (무역수지는 분기합, 환율은 분기 평균)

■ 원/달러 환율, 위안/달러 환율, 달러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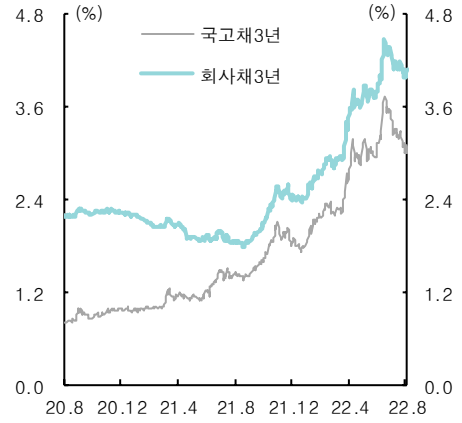


자료 : Infomax(5거래일 이동평균)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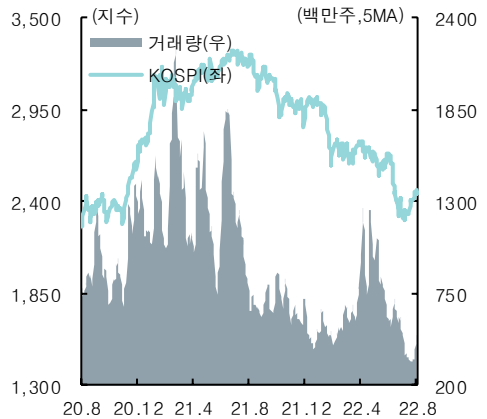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7월말	2.34	2.73	3.43	3.97	3.01	3.07
7월 29일	2.34	2.73	3.43	3.97	3.01	3.07
8월 01일	2.24	2.73	3.44	4.04	3.08	3.13
8월 02일	2.19	2.73	3.41	3.98	3.01	3.05
8월 03일	2.16	2.73	3.41	4.05	3.07	3.11
8월 04일	2.22	2.74	3.39	4.09	3.11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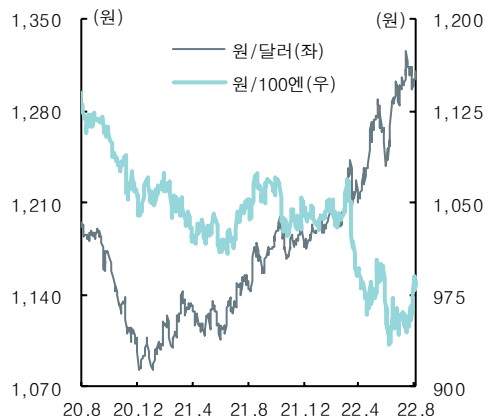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7월말	2,451.5	102,563	499	3,416
7월 29일	2,451.5	102,563	499	3,416
8월 01일	2,452.3	75,096	487	1,342
8월 02일	2,439.6	72,663	550	2,941
8월 03일	2,461.5	67,515	475	4,754
8월 04일	2,473.1	75,063	400	2,010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7월말	1,299.1	974.8	192.6	1,328.3
7월 29일	1,299.1	974.8	192.6	1,328.3
8월 01일	1,304.0	990.7	192.6	1,338.0
8월 02일	1,304.7	979.6	193.2	1,326.3
8월 03일	1,310.3	978.8	193.9	1,331.8
8월 04일	1,310.1	985.7	194.1	1,3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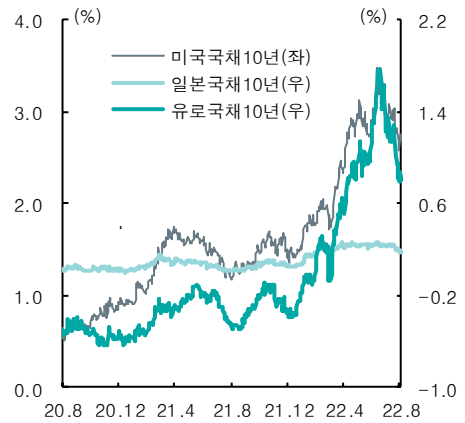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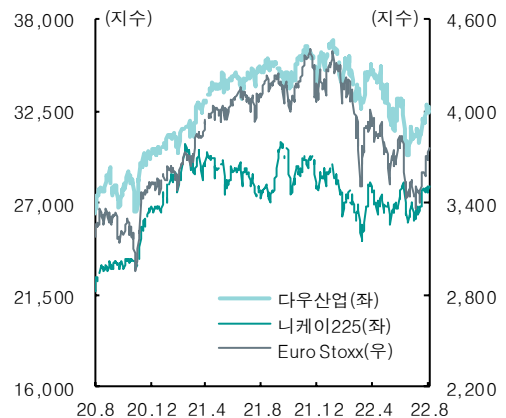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7월말	2.32	2.79	2.88	2.65	0.19	0.82
7월 29일	2.32	2.79	2.88	2.65	0.19	0.82
8월 01일	2.33	2.80	2.87	2.57	0.19	0.78
8월 02일	2.33	2.81	3.05	2.75	0.18	0.82
8월 03일	2.33	2.83	3.07	2.70	0.19	0.87
8월 04일	2.33	2.86	3.04	2.69	0.18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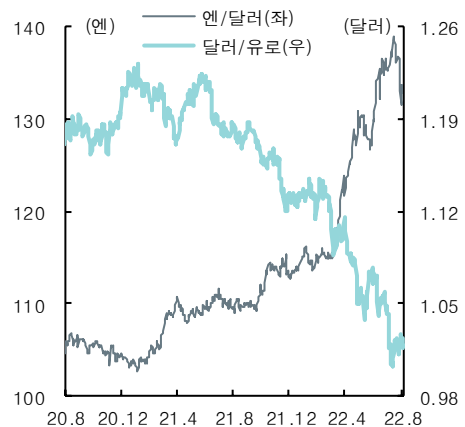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7월말	32,845.1	27,801.6	3,253.2	3,708.1
7월 29일	32,845.1	27,801.6	3,253.2	3,708.1
8월 01일	32,798.4	27,993.4	3,260.0	3,706.6
8월 02일	32,396.2	27,594.7	3,186.3	3,684.6
8월 03일	32,812.5	27,741.9	3,163.7	3,732.5
8월 04일	32,726.8	27,932.2	3,189.0	3,754.6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7월말	133.20	1.022	107.2	1,781.8
7월 29일	133.20	1.022	107.2	1,781.8
8월 01일	131.61	1.026	101.5	1,787.7
8월 02일	133.15	1.017	98.0	1,789.7
8월 03일	133.85	1.016	98.4	1,776.4
8월 04일	132.88	1.024	95.7	1,806.9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6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8월 5일 인쇄

2022년 8월 8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6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